

두 실록의 번역서-조선태조실록과 만주실록

[서평]

- [1] Choi Byong-hyon (2014), *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on Dynas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xxv+1028pp.
-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역 (2014), 『만주실록 역주』, 서울: 소명출판, 479쪽.

김 주 원*

근래에 우리 학계에 전에 없던 두 번역서가 출간되어 나온 것은 한국 학계의 연구 역량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앞으로 관련 연구를 촉진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큰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위 두 책 모두 번역하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점에서 각 책의 번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린다. 즉 태조실록(1392~1398년, 15권 3책)의 영문 번역본은 1,000쪽을 넘길 정도의 거질인데 수년에 걸쳐서 한 영문학자의 손으로 번역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한편, 『만주실록』은 만주문 - 한문 - 몽골문으로 된 청대에 간행된 역사서인데 만주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

*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해 낸 것이다. 만주사 즉 청사 연구의 기본 자료라고 할 수 있는 『만주실록』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온 것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일본(1938년)에 비해서 많이 늦었으나 앞으로 활발한 번역과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학술적 의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한국학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하여 다소 비판적인 안목에서 이 두 번역서를 소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1. 조선태조실록

- [1] Choi Byong-hyon (2014), *The Annals of King T'aejo, Founder of Korea's Choson Dynas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xxv+1028pp.

태조실록의 내용은 역사학자이면 모두 익숙히 잘 알고 있을 것이므로 언어학을 전공한 글쓰기가 감당할 내용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언어학자의 시각에서 태조실록 번역서를 평가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언급해 두하고자 한다.

우선 기본적인 문제로 조선실록의 국역본은 전반적으로 무수한 오역을 포함하고 있다. 번역자인 최병현 교수도 말하고 있듯이 실록을 영문으로 번역하는 동안에 실록을 다시 번역하는 수정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를 기다리지 않고 번역을 시도하여 원래 있던 국문 오역이 대부분 그대로 잔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점은 번역이 시기가 너무 일렀다는 점을 말해준다.

1.1.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의 문제

역사 기록물은 단순화하여서 보자면 ‘인물과 사건’이라는 단위가 연속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영문 번역을 할 때 매우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것은 인물에 대한 로마자 표기를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다. 조선 실록의 특성상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일본인 게다가 여진인, 몽골인 등 여러 민족의 인물이 나타난다. 이 중에서 여진인(또는 만주인)의 이름 표기가 어려울 것임은 힘들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다. 조선 초기에는 특히 여진인들이 국경 근처에서 빈번히 출몰하였고 조화에 참여하기 위하여 서울에까지 온 일이 많아서 여러 종류의 여진인 족칭과 여진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우선 한글(또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영문 번역에서는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 방식을 맥쿤-라이샤워 방식에 따랐다. 한국어(또는 한글)의 로마자화 방식에는 이외에도 예일 방식과 국립국어원 방식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어느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겠으나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는 표기이다. 그런데 맥쿤 방식은 외국인 특히 미국인에게 귀에 들리는 대로 적는 방식이어서 한국어의 어음 변동을 잘 반영하여 주는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 점 때문에, 한글로 환원하기가 어렵다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게다가 어깨점이라든가 모음자 위에 반달점 같은 구별 부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기까지 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태조(太祖)와 목조(穆祖)의 ‘조’자는 같은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T’aejo’와 ‘Mokcho’로 적었다. 각각 [태조]와 [목조]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표기는 유사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이 숙당을 ‘Yi Sukrang’ <p. 161>으로 표기했다면 이숙복은 ‘Yi Sukpok’으로 표기해야 할 것이나 번역문에는 ‘Yi Sukbok’ <p. 161>로 되어 있어 일관성이

없다. ‘이득분’도 마찬가지로 ‘Yi tükbun’ <p. 601 등>으로 잘못되어 있다.

(2) 앞 음절 끝 자음이 {ㄴ 이거나 ㄹ}이고 뒷 음절이 {ㄹ}로 시작되면 둘 다 구별 없이 {-ll-}로 표기되어 다음과 같은 이름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Yun Sillo’ <p. 253>라는 표기를 보면 이 이름이 ‘윤신로’인지 ‘윤실로’인지 알 수가 없게 된다. 실록을 직접 찾아보아야만 비로소 ‘윤신로(尹莘老)’임을 알 수가 있다. ‘Söllac’ <p. 8>도 마찬가지이다. 실록을 보아야 ‘선래(善來)’임을 알 수 있다. 비유하자면 이는 마치 선릉(宣陵)을 ‘Söllüŋ’으로 표기하는 것과 같은데 지하철 역명이면 외국인을 포함한 대중에게는 발음에 가까우므로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한자음과 한글 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역사 자료나 학술 목적의 번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기상의 문제는 이하에서 제시하는 족명과 인명 표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비하면 오히려 작은 문제에 속할 것이다. 여진족(더 범위를 넓히면 野人)의 족류로 다음 네 종류의 족명이 나타난다(대표 표기로 보인다).

兀狄哈, 兀良哈, 斡朶里, (土着)女眞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이 네 족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로마자 표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와 더불어서, 동일한 족명을 나타내는 것이 분명한 이표기들이 나타나는데 이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兀狄哈 (弓知介, 吾狄介), 兀良哈 (吾郎哈), 斡朶里 (斡都里, 吾都里)

‘다행히도’ 태조실록에는 이표기가 각각 한둘씩만 나타나므로 심각한 혼란에 빠지지는 않지만, 번역자는 이를 현대 한어음(즉 중국음)으로 읽

기로 한 것 같으며 각각 다음과 같이 로마자화하고 있다.

Yudiha (Yuzhijie),
 Wolianghe (Wulangha, Wuliangha),
 Woduoli (Woduli, Wuduli)

영문 번역서로 조선실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러한 다양한 족명을 동일한 족명의 이표기로 이해하기보다는 각각 다른 족명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더 크다. 위에서 ‘다행히도’라고 한 것은 태조실록에는 이 정도의 이표기가 있을 뿐이지만 뒤로 갈수록 여진족과의 접촉이 늘어가면서 훨씬 많은 수의 이표기가 나타난다. 한 예를 보이면 오늘날 한국어의 ‘오랑캐’라는 말의 어원이 된 오랑캐족은 조선실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¹⁾ 족명 뒤의 숫자는 조선실록에 나타나는 횟수이다.

兀良哈 954
 靉郎哈, 五郎哈 59
 靉良哈, 五良哈 29
 靉郎介 20
 兀郎哈 16 (이하 생략)

이들을 각각 해당하는 현대 중국어의 병음자모 로마자로 표기한다면 그 혼란상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한자 표기는 하나의 족칭을 다양한 사정에 의해서 서로 달리 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족속이면 동일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족칭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음가를 보여주는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하는데 족명의 경우 龍飛御天歌(1447) 등의 기록이 도움이 된다.

1) 김주원(2008), 『조선왕조실록의 여진족 족명과 인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69.

兀狄哈 우디거 <용비어천가 권1 7a>

兀良哈 오랑캐 <용비어천가 권1 7a>

斡朶里 Odoli <만주실록>

이를 근거로 삼으면 각각의 족명을 (맥균 방식을 따른다면) ‘Udigö, Orankae, Odoli’로 일관성 있게 적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개인의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몇 개만 살펴보고자 한다. 아마도 번역자(한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학자들, 국역본을 영문으로 번역한 최병헌 교수 모두 포함)를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여진족의 다양한 인명이었을 것이다. 특히 <제8권, 태조4년(1395) 12월 14일(계묘)>에 나오는 다음 기사는 난해하기 짝이 없다.

如女真則斡朶里豆漫夾溫猛哥帖木兒、火兒阿豆漫古論阿哈出、托溫豆漫高卜兒闊、哈關都達魯花赤奚灘訶郎哈、(중략)

斡合猛安奚灘薛列、(중략) 南突兀狄哈則速平江南突阿刺哈伯顏，闊兒看兀狄哈則眼春括兒牙禿成改等是也。 <제8권, 태조4년(1395) 12월 14일(계묘)>

여기에는 몽골어(達魯花赤), 여진어 즉 만주어(豆漫, 猛安)가 들어 있을 뿐 아니라 오자(斡合)이 아니라 ‘斡合’이며 이 또한 만주어이다)도 있는 데다가 여러 지명과 족칭이 동시에 표기되어 있어서 번역하기가 무척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이 중에서 마지막 부분인 “南突兀狄哈則速平江南突阿刺哈伯顏，闊兒看兀狄哈則眼春括兒牙禿成改等是也.”에 대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Alahaboyan, a member of the Southern Tujue tribe, a branch of the Wudiha tribe, who inhabited the Suping River; Guaeryatuchenggai of Yanchuan, a member of the Wudiha tribe of Kuoerkan; and so forth.” <555-556>

여기에서 ‘南突兀狄哈’을 ‘a member of the Southern Tujue tribe, a branch of the Wudiha tribe,’로 번역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번역본의 중국 지역의 지명에 대한 로마자 표기는 현대 중국어 병음으로 한 것을 감안 하면 ‘南突’을 ‘南突厥 [Southern Tujue]’로 번역한 것이 분명해진다. 突厥은 당 시대에 있던 민족 명칭으로 오늘날의 튀르크족의 조상인데 여진족의 족칭 속에 나타날 까닭이 없다. 영문 번역에서는 이를 ‘우디저 부족의 한 분파인 남돌궐 부족’으로 번역한 셈인데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아래의 龍飛御天歌(1447) 주석에 유사한 대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南突남돌兀狄哈 則速平江南突阿刺哈伯顏남돌아라카바얀○南突 姓
也 南突兀狄哈 部種名 因人姓以名焉 <龍飛御天歌 七 24a>

‘南突兀狄哈’은 우디허에 속하는 부족명이며 ‘Namdol Udigö’인 것이다. 한편 ‘Guaeryatuchenggai’라고 번역된 ‘括兒牙秃成改’도 용비어천가를 참고하면 ‘Golya Tuch’inggae’임을 알 수 있다.

闊兒看崙칸兀狄哈 則眼春括兒牙秃成改골야투칭개等是也 <龍飛御
天歌 七 24a>

1.2. 영문 번역에 나타난 오류에 대하여

이하에서는 약간의 오역을 지적하고자 한다.

(1) 水吾狄介

다음은 실록에 여진족 관련 기사가 최초로 나오는 대목이다.

靑郎哈水吾狄介等四人來。 <태조 8권, 4년(1395) 12월 14일(계묘)>

오랑합 수오와 적개 등 네 명이 왔다.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영역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Four Jurchen chiefs, including Sui Wu and Di Jie, defected from Wuliangha and came to our country. <p. 554>

이 번역이 이상한 것은 원문에 없는 여진(Jurchen)이 나오는데다가, 그들 중 두 사람의 이름은 Sui Wu와 Di Jie이며, 그들은 Wuliangha로부터 떠나 왔다는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다. 위의 단순한 문장이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이 문장은 아무리 앞뒤를 정밀히 살펴보더라도 ‘오랑합과 수오(,)적개 등 네 명이 왔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오랑합 즉 오랑개는 여진과는 다른 족속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국역본에서는 水呑과 狄介 두 사람으로 번역하였으나 이후에는 ‘水呑狄介’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수이푼강 하류에 살던 종족 명칭임을 알게 되었다.²⁾ 즉 ‘水呑狄介’는 태종실록에서 ‘水兀狄哈’으로 나타난다.

임금이 수울적합(水兀狄哈)과 다른 야인(野人)들이 서로 결탁할 것을 염려하여 사람을 보내어 초무(招撫)하게 하고, 그 변(變)을 살피게 하였다. 김동개는 수울적합(水兀狄哈)의 족속(族屬)이었다. <태종 21권, 11년(1411) 5월 6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현재의 실록 웹 버전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을 수정하였다.³⁾

2) 김주원 (2006),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에 나타난 오류』, 『알타이학보』 16, 한국알타이학회, p. 11 참고.

3) 국사편찬위원회의 실록 웹서비스 버전은 거의 매달 오자와 오번역을 일반인들로부터

吾郎哈水吾狄介等四人來。

오랑합(吾郎哈) 수오적개(水吾狄介)등 4인이 왔다.⁴⁾

그렇다면 정확한 번역은 ‘Four Orangkæ and Maritime Udigö came to our country.’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다루가치(達魯花赤)

初三海陽【今吉州。】達魯花赤金方卦娶度祖女, ... <태조 1권 총서>
처음에 삼해양(三海陽) 다루가치(達魯花赤) 김방괘(金方卦)가 도조(度祖)의 딸에게 장가들어.

At first, Kim Panggwæ, whose Mongol name was Daluhuachi, lived in Samhaeyang (Kilchu). He married the daughter of Tojo and ... <p. 25>

이 번역에서는 Daluhuachi를 김방괘의 몽골식 이름으로 보았으나 ‘다루가치(Daryachi)’는 元에서 정복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임명한 행정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3) 위구르자(偉兀子)

다음의 내용은 국역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영문 번역에서 잘못된 경우이다.

터 신고를 받아서 수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웹 버전은 책으로 나온 『국역조 선왕조실록』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다. 따라서 이 영문 번역서의 전통적 의미의 저본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종래의 번역서에는 없던 큰 문제이다.

4) 보다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오랑합과 수오적개 종족의 사람 넷이 왔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習蒙語者, 能譯文字, 能寫字樣, 兼寫偉兀字者爲第一科; 只能書寫偉兀文字, 并通蒙語者爲第二科, 出身品級同前。 <태조 6권, 3년(1394) 11월 19일>

몽고어를 공부하는 자로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겸하여 위글[偉兀] 문자를 쓰는 자를 제1과로 하고, 위글 문자만을 쓸 줄 알고 몽고어에 통하는 자를 제2과로 하며, 출신의 품급은 전과 같이 한다.

the ones who belong to category 1 are those who can both translate and write Mongolian and Uyghur, and those belonging to category 2 are those who can only write Uyghur and speak Mongolian, and ...<p. 452>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몽골어를 말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글자가 파스파자, 위구르자의 두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 기사는 그 글자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급수를 나누었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때 위의 번역에서 ‘문자를 번역하고 글자를 쓸 줄 알되 겸하여 위글[偉兀] 문자를 쓰는 자’를 ‘those who can both translate and write Mongolian and Uyghur’로 번역함으로써 ‘몽골어와 위구르어를 번역하고 쓸 줄 아는 자’(색인에서도 이 부분을 색인 ‘Uyghur language’라고 해 놓았다)로 번역해 놓았는데 원문의 내용은 ‘몽골자 즉 파스파자를 번역하고 쓸 수 있고, 위구르자도 쓰는 자’를 뜻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실록을 제대로 영문으로 번역하려면 다음 몇 가지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사실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한국고전번역원의 실록 재번역(현대화) 작업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

첫째, 실록은 장기간에 걸친, 중층적 역사 기록물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한다. 1차 사료의 필자와 편집자가 동일하지 않으며, 왕대 단위로 각각 편집되며, 대개의 경우 사건이 일어난 지 수년 내지 수십

년 이후에 편집이 된다는 사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인 인명을 비롯한 고유명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표기가 필수적이다. 특히 조선실록 전반부에는 여진족의 족명과 인명이 무수히 나온다. 그런데 이 족명, 인명은 일정한 표기 원칙이 없이, 중국측 문서와 조선측 문서에, 그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적은 것을 그대로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인물이 보통 3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10가지 이상으로 표기되어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들 족명과 인명은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정하고 그에 따른 표기법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인물과 사건’으로 이루어진 역사 기록에서 ‘인물’이 불분명해지므로 완전히 카오스(혼돈)에 빠지고 만다.

셋째, 실록은 역사 기록물이지만 실로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넷째, 제대로 된 번역을 위해서는 당시에 나왔던 관련 서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대로 용비어천가의 내용만 제대로 활용하였어도 어이없는 번역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 책은 번역의 내용이나 분량으로 볼 때 일 개인이 번역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헌신적인 작업의 결과이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 있는 분들이 태조실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었음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만 보다 완벽한 번역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만주실록

-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역주회 역 (2014), 『만주실록 역주』, 서울: 소명출판, 479쪽

한국에서 淸史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지금까지는 漢語로 쓰인 사료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수년 전부터 만주어로 쓰인 사료를 이용하여 청의 역사를 연구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이러한 경향은 때늦었으나 올바른 역사 연구를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학계에서 만주어는 언어학자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 역사학자와 공유하게 된 것이다.

『만주실록 역주』는 주변역자인 김선민 교수를 비롯한 12명의 연구자가 2년간의 강독 끝에 탄생시킨 업적이다. 만주어의 로마자 전사와 국어 번역을 나란히 둠으로써 만주어의 어떤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였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여 만주어 학습에도 도움이 되게 배려하였다. 그리고 『만주실록』의 특색의 하나인 그림을 모두 수록함으로써 원래의 실록 원전을 읽는 듯한 생생함을 얻게 되었다. 역주 내용도 비교적 충실하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누르하치의 친인척 관련 기사와 인명에 대해서 꼼꼼히 역주를 달아 주어서 처음 접하는 이들도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2.1. 번역에 대하여

옥의 티라고 해야 할까 약간의 오역과 오자가 눈에 띈다. 먼저 만주어의 속격 어미는 -i이다. 그런데 -i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속격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따라서 “nantai gebungge niyalma”(134쪽)를 “난타라는 사람”으로 번역하였으나 같은 쪽에도 “nantai be amasi unggihe”에서 보듯이 이 인명은 “난타”가 아니고 “난타이”이다. 이와는 반대로 속격 -i를 명사의 어간으로 잘못 번역한 부분도 눈에 띈다. “hošoi beile”(378, 379쪽)를 “호쇼이 버일러”로 번역하였으나 “호쇼의 버일러” 또는 “호쇼 버일러”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주어는 주격 어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말에 맞게 번역하려면 주격 조사 “-이, -가”를 붙여야 한다. 한 예

를 들어 “han ini non i baru hendume”(390쪽)를 “한 그의 누이를 향해 말하기를”로 번역하여 어색한 번역이 되어 버렸다.

한편 만주어에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적지 않다. gurun “나라, 국민”, jušen “만주인, 속민”, cooha “군인, 군대”, olji “포로, 노획물” 등을 들 수 있는데 대부분 적절히 번역되었지만 olji의 경우 여러 곳에서 “포로”를 “노획”으로 번역하여(183쪽, 226쪽, 267쪽, 341쪽 등) 이상하게 된 곳이 있다. 한편 ying iliha는 “영을 세우다”의 뜻과 함께 “진을 치다”(326쪽, 334쪽 등)가 더 적절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hengkile-는 “고두하”로 번역되어 있으나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어색하다. “절하다”로 번역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번역하지 않고 만주어를 그대로 옮긴 “한, 어전, 버일러, 푸진, 비트허시, 가추하, 니루, 구사, 머이런, 구추, 구푸” 등이 보인다. 이들 단어에 대하여 처음 나타날 때 주석에 설명이 베풀어져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적절한 번역어를 찾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언어학적 관점에서 지적한 몇 예들은 미시적으로 들여다 본 것일 뿐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무난한 번역서라고 판단된다. 이 번역서로 인하여 이제 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쉽게 만주인들의 역사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번역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⁵⁾

2.2. 백두산(장백산) <삼 선녀 설화> 수록의 전말

평자는 이 자리를 빌어 아쉬운 점 한 가지를 토로하려 한다. 그것은 이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만주인의 발상지에 관한 이 책의 번역자들이

5) 김주원·고동호에 의해서 『滿文老檔 역주』도 출판 준비 중이다.

갖는 관점에 대해서이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고 나면 대부분의 독자는 만주인의 발상지가 장백산 즉 백두산이라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게 되고 장백산이 그들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아무 의심도 없이 믿어버리고 말 것 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장백산이 그들의 발상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앞으로 우리 학계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부각시키려는 생각에서이다. 즉 이 책이 역주서인 만큼 주석을 통해서라도, 최근에 만주어로 기록된 역사서가 잇달아 발견되면서 일본과 중국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만주족 발상지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소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대로, 淸朝를 개창한 만주인들은 장백산 <삼 선녀 설화>를 『만주실록』의 첫머리에 들으로써 매우 인상적으로 그들의 선조가 장백산에서 발상한 것으로 이야기한다.

『만주실록』은 『태조무황제실록』(1655)을 바탕으로 하여 1779년(또는 1781년⁶⁾)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그 이전인 1773년에 역시 『태조무황제 실록』을 바탕으로 한 『황청개국방략』이 완성되었다. 이 책의 내용을 『조 선정조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⁷⁾

황제께서 내각(內閣)에 명하여 『황청개국방략(皇淸開國方略)』을 찬술하여 (중략) 그 말에 이르기를, ‘장백산(長白山)은 높이가 2백여 리며 1천여 리를 뻗쳐 있으며, 산 정상에 연못이 있어 이름을 달문

-
- 6) 이하의 책들의 간행 연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달리 보는 경우가 흔하다. 그 이유는 완성된 연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완성된 시점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 7) <정조실록>에 인용된 이 기록은 『황청개국방략』과는 상당히 다르다.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황청개국방략』에는 장백산 동쪽에 있는 ‘부구리 산과 불후리 못’에 삼 선녀가 내려온 것으로 하였으나, <정조실록>에서는 이를 생략해버려서 마치 백두산 天池 즉 闔門潭에 삼 선녀가 내려온 것으로 하였다.

(關門)이라고 한다. 주위가 80리로, 하루는 천녀(天女) 3인이 내려와 못에서 목욕을 했는데, 맏이는 은고륜(恩古倫), 다음은 정고륜(正古倫), 막내는 불고륜(佛古倫)이라 하였다. 갑자기 신작(神鵲)이 붉은 과일을 물어다가 떨어뜨렸는데 막내가 주워서 삼켰다. 목욕을 마치고 옷을 챙기다가 문득 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껴서 날아서 하늘에 오를 수가 없었다. 두 언니가 말하기를, 「네가 이미 임신을 한 것이니, 이는 천명(天命)과 관계된다. 분만하기를 기다려서 기른 후에 비로소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고는 마침내 구름 속으로 솟구쳐 올라갔다.

불고륜은 바위 굴 속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거처하다가 달수가 차서 한 남자 아이를 낳았는데, 귀가 크고 이마가 넓었다. 겨우 열 살이 지나자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장대(壯大)했는데 천녀(天女)가 작은 배 하나를 얻어서 모자(母子)가 함께 타고서 물을 따라 삼성계(三姓界) 물가에 이르러 아이를 언덕에 두고서 말하기를, 「네 성(姓)은 애신각라(愛新覺羅)이며, 네 이름은 포고묵웅순(布庫默雍順)⁸⁾이다.」 하고 말을 마치고는 표연히 날아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이때 삼성(三姓)에서는 서로 어른을 다투어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아이가 단정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까닭을 묻고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신(神)이라고 하면서 맞이하여 삼성(三姓)의 어른을 삼았으니, 이이가 청(淸)나라 사람의 시조(始祖)가 되었으며 추존(追尊)하여 조조원 황제(肇祖原皇帝)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조 23권, 11년(1787) 2월 25일>

이미 그 이전에 청 강희제는 장백산을 청조의 발상지로 중시하여⁹⁾ 강희 16년(1677)과 23년(1684)에 두 차례에 걸쳐 백두산 흥경 등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 여진 즉 金國의 예에 따라서 강희 17년(1678)에 백두산을 장백산지신(長白山之神)에 봉하여 제를 지내도록 하였다. 그리고 강희

8) 이것은 오류이다. 『황청개국방략』에는 布庫哩雍順으로 되어 있다.

9) 강희제는 장백산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長白山係本朝發祥之地, 今乃無確知之人.” <강희 16년(1677) 4월 15일 上諭>) 대신들을 파견하여 장백산에 다녀오도록 하였다.

51년(1712)에 이른바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하였으며 이때부터 만주인들이 장백산을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한층 강화되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서술된 역사를 보고 우리는 백두산 또는 장백산이 만주인들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한 사실로 믿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이 상당히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역사 기록에서든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괴이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역사 기록은 승리한 자의 기록이며 철저히 그들의 시각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왜곡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청실록 특히 청태조실록은 여러 차례 개수되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 청태조실록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에 의하면 1636년에 『태조태후실록』(전하지 않음)이 만들어졌으며, 1655년에 『태조무황제실록』이 편집되었고, 이어서 1686년에 『태조고황제실록』이 만들어졌으며 건륭기인 1739년에 『태조고황제실록』이 최종적으로 개수되었다. 최소한 세 차례 개수가 된 셈이다. 실록을 개수하는 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요는 이 중에서 <삼 선녀 설화>는 1655년에 개수된 『태조무황제실록』에 나오며 1636년에 편집된 『태조태후실록』은 현재 전하지는 않지만 1980년대에 발견된 <내국사원당안>¹⁰⁾ 등을 참고하면 거기에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장백산 관련 기사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하의 내용은 한국알타이학회 국제학술대회 松村 潤의 발표문에 의거한 것이다.¹¹⁾

1960년대에 발견된 『구만주당』의 <천총9년당>(1635년) 5월 6일 조에

10) <선 경기연 한의 賢行 典例 (Nenehe genggiyen han i sain yabuha kooli)>라는 제목의 문서이다.

11) 松村 潤 (2000), 清太祖實錄考, Proceedings of the 4th Seoul International Altaistic Conference, Seoul, Oct. 23-25, 2000. (The Altaic Society of Korea). ; 松村 潤 (2001), 清太祖實錄の研究. 東北アジア文獻研究叢刊 2. 東京: 東洋文庫 清代史研究室.

흑룡강 유역의 후르가 지역 원정시 후금군에게 투항한 Muksike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한 기록이 있다.¹²⁾

“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대를 이어 부쿠리 산록의 불후리 연못에 살고 있었다. 우리들에게는 기록물은 없으나 전설에 의하면 그 불후리 연못에 하늘의 세 딸 영굴린, 정굴린, 퍼쿨린이 목욕하러 와서 신 까치가 보내온 붉은 과일을 막내인 퍼쿨린이 입에 머금으니 목으로 넘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어 부쿠리용손을 낳았다. 그 일족이 만주국 사람이다. 그 불후리 못은 둘레가 백 리이고 흑룡강에서 백 이삼십 리이다.”

후르가 국의 위치로 볼 때에 이 부쿠리산은 흑룡강 이북 지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두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그 다음 해인 1636년에 『태조태후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국사원당안>(각주 9 참고)을 보면, 위에서 본 후르가의 Muksike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삼 선녀 설화>가 들어 있지만, 당연히 장백산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술이 없다.¹³⁾

그러나 1655년에 개수된 『태조무황제실록』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원래의 <삼 선녀 설화>의 앞부분에 장백산에 관한 서술이 추가되었다.¹⁴⁾ 이렇게 됨으로써 <삼 선녀 설화>는 그 무대가 원래 흑룡강 유역에 있던 후르가 국에서 장백산으로 바뀐 것이다. 즉 부쿠리 산을 장백산의 동쪽¹⁵⁾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 만주족의 시조가 발상한 성지로 만

12) 松村 潤 (2001), p. 23, p. 41 참고.

13) 뒷부분에 šanggiyan alin 즉 “백산”에 관한 언급이 있으나 이는 金國에 관해서 언급할 때 나온다.

14) 이 장백산에 관한 기사는 『元一統志』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松村 潤 (2001), p. 22 참고). 이러한 사실은 『欽定滿洲原流考』 卷14에 나와 있다.

15) 그런데 한문본 『태조무황제실록』과 현재의 『만주실록』의 한문 부분에는 부쿠리산의 위치가 ‘장백산의 동쪽’이 아니라 ‘장백산의 동북쪽’으로 되어 있다. 실록 편수

든 것이다.

정리를 하자면 백두산 또는 장백산이 여진인, 즉 만주인이 신성시하는 산이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 산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으며, 1635년에 후금에 투항한 흑룡강 유역에서 살던 사람의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그들의 조상이 장백산에서 유래하였다는 이야기로 둔갑을 시킨 것이다.¹⁶⁾ 이 설화가 『태조무황제실록』(1655년)에 실린 이래로 『황청개국방략』(1773), 『만주실록』(1779), 『만주원류고』(1789) 등에 수록되었으며 위에서 본 대로 『조선정조실록』(1787)에도 실리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만주실록』 등에 나오는 <삼 선녀 설화>의 수록 전말을 알아보았다. 평자는 한국어로 된 『만주실록 역주』가 번역되어 나온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책의 첫머리에 장백산 또는 백두산이 만주족의 발상지로 기술된 내용이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주석이 없어서 일반 독자들이 이 설화를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일 것을 염려하여,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논란거리의 일단을 소개하였다.

자들이 장백산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빚어진 일로 보인다.

- 16) 松村 潤 교수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중국의 청사학자인 王鍾翰은 이 설화는 당시에 만주인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던 내용이어서 누가 말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고, 松村 潤 교수가 추정한 만주족 발상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의 발상지는 대개가 큰 강을 끼고 있는 것이 일반적임을 볼 때, 큰 산을 발상지로 본 것은 다소 이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http://www.newsmth.net/nForum/#!article/ManchuCulture/3986?au=abelin> (2014년 7월 15일)에서 인용함).